

당신소감

정말 기뻐요

훌륭한 발명인이 되겠어요

국민학생부(작문부문)

과학자의 꿈이 밀거름

이 상을 계기로 노벨상을

이 한 규

〈대구 남도국교 6학년〉



이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때까지 과학에 관한 여러 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상을 받아왔지만 전국 최우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라,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제가 이 상을 받는 때에는 과학 주임선생님의 지도와 형의 모험 항공기에 대한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과학반 행사에는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갔고, 무엇이든 다 참석해왔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최우수상을 받는데 밀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학자의 꿈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노벨처럼 "한규상"이라는 것이 생길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국민학생부(작문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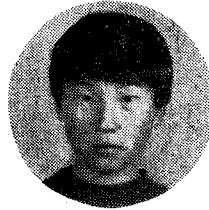
이 상을 어머니께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결심

전 성 배

〈대전 유성국교 6학년〉

저는 상을 타면 제일 먼저 몇일 전 수술을 무사히 마친 어머니의 꿈에 안겨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좋은 상을 타기까지에 수고해 주신 선생님께도 더 많은 감사를 드리지만, 어머니께서 수술을 하시기 전



생명을 좌우하는 큰 수술이라는 말을 들은 저는 어머니께서 수술을 무사히 마치신대 대해 정말 큰 기쁨을 맛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 상을 안겨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대회를 열어 주신 선생님들과 저를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게 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큰 상을 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인하여 제가 꼭 과학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생활하여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국민학생부(만화부문)

나의 생각이 최우수상이라니!?

편리한 생활위한 발명할 터

김 윤 희

〈충남 당진 합덕국교 5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날이었어요. 40여일 동안 떨어져 있던 선생님, 친구, 교실을 보니 정말 반가웠어요. 교실 한가운데로 가서 책상을 깨끗이 닦고 앉았어요. 그런데 책상이 조금 낮아 좀 불편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고정되어 있는 책걸상을 내 마음대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한 책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발명특허협회에서 발명에 관한 작문·만화를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한 편리한 책걸상을 그려 냈어요. 그게 최우수상에 당선되다니 너무나 기뻐요.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고 어른이 되면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물건을 만드는 일에 앞장 서겠어요.

제가 그린 만화를 책걸상을 만드시는 분이 보시고

◎.....정말 기뻐요.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심사위원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

◎.....명인(과학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에 뽑힌 6명 학생의 한결같은 소감이.....◎

◎.....다. 당선작품 못지않게 정성을 다해 써 내려간 당선소감을 통해 우리는.....◎

◎.....발명한국의 밝은 내일을 엿볼 수 있다.(편집자 주).....◎

실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최우수상을 타게 도와주신 선생님, 한국발명특허협회 선생님들 정말 고마워요.

중학생부(작문부문) ▮

이렇게 큰 상은 처음

기술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

이 상 준

〈함열중학교 2학년〉

궁금하여 기다리던 차에 선생님께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서 그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하였으나 다시 마음을 진정시켜 생각하여 보니 이렇게 큰 상을 받는 것이 처음인 저는 기술 선생님의 적극적이고 끈

질기게 지도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진교준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쓰레기 선생님과 쓰레기 학생이라는 별명까지 들어가면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저의 쓰레기소각장치가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 처리에 고심을 겪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 관공서, 회사, 공장등에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최우수상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과 한국발명특허협회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중학생부(작문부문) ▮

이게 꿈이 아닌가 의심

지도교사 선생님의 덕택

업 승 신

〈부산 거성중학교 3학년〉

오늘 아침 우리 학교 발명반 지도 선생님께서로부터 수상 소식을 전해듣고 너무나 뜻 밖의 일이라 농담을 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방과후 수상자 명단을 보고 나서야 제가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을 확인하고 이게

꿈이 아닌가 하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우리 학교 발명반은 제3회 때부터 이번 대회까지 응모해 왔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학교 발명반에서 여섯번째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다소나마 우리 학교의 명예를 빛내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오직 "반사를 무심히 보아 넘기지 말고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좀 더 쉽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없는가? 하고 항상 탐구하는 마음이 곧 과학하는 마음이다"라고 늘 격려해 주시던 지도 선생님의 가르침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학생부(만화부문) ▮

조그마한 생각이 큰영광을

훌륭한 발명인이 될 터

류 기 수

〈대전 동산중학교 2학년〉

싱글벙글 좋아하며 콧노래까지 부르며 집에 돌아온 저에게 어머니는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최고로 좋은 일이 있었지요"라고 대답한 저에게



어머니는 궁금하싯듯 다시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기수가 오늘은 시험결과라도 올라간 모양이구나"

"아니예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얼마전에 응모한 발명만화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 때 어머니의 기뻐하시는 모습은 두고 두고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관찰하고 생각하며 지금보다 편리하게 고쳐질수는 없을까 하는 저의 조그마한 생각이 이런 영광을 차지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